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16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2014년 4월
장현숙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Ⅰ. 서론 ····· 1

Ⅱ. 대학생 창업현황 및 지원제도 ····· 3

Ⅲ. 대학생 창업 애로사항 ····· 9

Ⅳ. 결론 및 시사점 ·····15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장 현 숙 연구위원 (☎ 02-6000-5154, zestjang@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약 56만명) 대비 0.0007%에 불과하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을 포함,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각 지자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백 개에 달하는 창업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와 방법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2012년 전체 424개 대학 중 175개 대학에서 학생 창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창업지원액 239억원 가운데, 84%를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획일적 지원내용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창업 후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멘토가 부족하고 인력채용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이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때 현장 경험 중심의 전문 멘토링 서비스와 동종업계 창업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창업 자금 지원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구비서류의 간소화, 부처간 서류양식의 통일, 지원금 총액을 카드로 일시 선지급하는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창업자의 행정편의성을 증대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지원을 개선하고, 업종별 특성이 고려된 맞춤형 자금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대상기업 요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을 창업기업의 경우, 3인 이상으로 완화한다면 초기 창업기업의 인턴 활용으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창업초보자인 학생 창업가는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며 창업에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창업 이후 성장단계에서의 사후관리 및 지원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창업 지원 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넓혀서 장기적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문

I. 서론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 창업은 청년실업의 대안이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사회의 창조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활동이나 관심은 매우 낮음

○ 대학생 중 창업 관련 과목의 이수 비율은 2.6%이며,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도 0.87%에 불과[1)]

– 전국 대학(466개)의 창업동아리와 참가자는 각각 1,833개와 22,463명으로 집계(창업동아리당 평균 12.2명)

<대학교 분야별 창업동아리 현황>

(단위 : 개)

구분	정보 통신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공예 디자인	생명 식품	화학 섬유	환경 에너지	기타 (전분야)	전체
대학 (127개교)	503	199	137	116	92	61	34	305	1,447
전문대학 (63개교)	69	44	61	68	37	8	5	94	386
전체(190개교)	572	243	198	184	129	69	39	399	1,833

자료 : 창업진흥원(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재인용

○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의지 또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직장 취업에 크게 뒤지고 있음

– 2013년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 백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92%가 창업을 생각해 본적이 없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무모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부는 대학생 창업활성화를 위해 관련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1) 교육부(2013)

○ 정부는 2013년 9월, 대학 내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창업 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시행 중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재 61개 창업교육센터를 100개로 확대, 실전중심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연간 500만원 내외 초기 활동비 지원
*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18개, 창업보육센터 208개, 창업아카데미 30개교
* (대 학) 고려대 '캠퍼스 CEO',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KAIST '사회적기업가센터' 등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생 창업 현황[2] 및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대학생이면서 창업현장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을 인터뷰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통해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2) 대학생 창업현황 통계자료는 별도로 집계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청의 업종별, 연령별 창업 통계자료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11년부터 공시대상 대학이 공개하는 14분야 67개 항목 중 창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Ⅱ. 대학생 창업 현황 및 지원제도

1. 대학생 창업 추이

□ 우리나라는 start-up 발굴 및 육성이 국가과제인 가운데서도 대학생 창업자수 및 이에 따른 매출실적 모두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3년 7월 현재, 대학생 창업자현황은 창업자가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약 56만명) 대비 0.0007%, 기업이 전국 466개 대학 중 377개로 학교당 평균 0.8개에 머물고 있음[3)]

○ 2012년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은 236개를 기록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약 35억원 수준임

<대학생 창업현황(2010~2013년)>

	2010	2011	2012	2013
대졸자수(명)	540,819	562,070	570,049	561,450
창업자수(명)	201	272	242	407
창업기업수(개)	195	263	236	377
창업기업 매출액(천원)	16,489,039	242,945,596	3,494,322	-

주 1) 2012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대학은 총 424개로 일반대(188), 교육대(10), 산업대(2), 전문대(139), 방통대(1), 사이버대(19), 기술대(1), 각종학교(5), 대학원대학(42), 고등교육법 이외 법률에 의한 대학(17)이 포함됨. 2013년 창업현황은 2014년 10월 공시예정
2) 2013년 자료는 창업진흥원에서 전국 대학 466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자료 : 대학알리미, 교육통계서비스, 창업진흥원 내부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 대학별로는 지난 3년간('10~'12)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가장 많은 창업자(45명)와 창업기업(60개)이 배출되었으며, 연세대는 같은 기간 창업한 29개 기업이 총 2,33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매출액 순위 1위 대학으로 조사됨

- 핀란드 알토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매년 평균 40여개의 신생 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대조됨[4)]

3) 창업진흥원, 2013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학생 창업관련 순위(2010~2012년)>

순위	학교	창업자수	학교	창업기업수	학교	매출액(천원)
1	KIST	45	KIST	60	연세대	233,584,907
2	연세대	28	연세대	29	KIST	5,386,425
3	한남대	28	한남대	28	가천대	2,047,329
4	원광대	27	원광대	27	한양대	724,199
5	한양대	26	한양대	24	울산대	694,653
6	계원예술대	23	동서울대	21	한남대	480,320
7	동서울대	21	울산대, 충남대	21	계명대	293,822

자료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대학생이 속한 30대 이하 청년창업의 업종을 보면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창업보다 초기 진입이 용이한 서비스업에 편중

○ 중소기업청의 업종별 창업 통계현황에 따르면, 2013년 30대 이하 청년창업은 신설법인수 74,162개의 4.7%(3,510개)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73.9%(2,596개)가 서비스업에 편중

* 연령대별 신설법인수('12년, 중기청) : 30세 이하(3,510개), 30~39세(17,538개), 40~49세(29,347개), 50~59세(18,410개), 60세 이상(5,277개), 기타(80개)
* 업종별 청년창업('12년, 중기청): 농 · 임 · 어 · 광업(77개), 제조업(619개), 건설 및 전기 · 가스 · 수도업(218개), 서비스업(2,596개)

❑ 미국, 핀란드 등 창업선진국의 대학생 창업이 매우 활발하며, 중국도 최근 대학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미국의 창업 관련 상위 10개 대학(2013년)>

순위	대학 명	도입 시기	기업인 교수비율 (%)	장학금 예산(달러)	졸업생 창업 비율(%)	기업 유지율 (%)	창업 관련 단체 및 클럽 수
1	밥손대학	1999	100	30,000,000	11	90	95
2	휴스톤대학교	1995	100	95,000	41	100	3
3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1971	94	17,000	50	100	5
4	시러큐스대학교	1996	100	2,622,750	12	100	5
5	베일러대학교	1977	100	3,340,000	67	75	6
6	오클라호마 대학교	2004	100	2,200,000	6	100	7
7	스탠포드대학교	–	–	–	–	–	8
8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2003	67	474,500	54	100	10
9	브리검영대학교	1989	90	214,830	63	67	14
10	노스이스턴 대학교	1980	95	5,493,857	20	100	7

주 : 2013년 4월~6월까지의 조사결과로 미국 내 2,000개 이상의 대학과 대학교가 대상. 관련 개설과목 수와 종류, 졸업 후 창업한 학생비율 및 유지 · 성공비율, 장학금과 교외 활동기회(인턴쉽 등)와 공모전 개최 및 상금지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위를 선정함.

자료 : http://www.entrepreneur.com/topcolleges/undergrad/0.html

○ MyCOS(麥可思)의 '2012~2013년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中國大學生就業報告)'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중국 대학생의 창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 1%대에서 2012년 2%대로 상승[5)]

* 2012년 중국 대졸자 680만명 중 136,000명이 창업

2. 정부 지원정책

☐ 창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은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창조경제타운에 소개된 것만 218개에 달함

○ 그 외 각 지자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14년 창업지원사업은 113개임(중기청 35개, 미래부 4개, 문화부 3개, 고용부 2개, 지자체 65개)

○ 수백 개에 달하는 창업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와 방법 등이 상이

– 대분류 11개 기관, 세분류 총 42개 기관이 창업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 중

<2014년 기관별 창업지원 사업수>

시행기관		사업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업마당,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76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 한국특허정보원, 지역지식재산센터, 국제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표준특허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65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진흥재단	24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비지니스아이디어산업협회	22
중소기업진흥공단	–	14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
기술보증기금	–	5
교육부	(사)벤처기업협회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
법무부	–	1
한국정책금융공사	–	1
합계		218

자료 : www.creativekorea.or.kr을 참조하여 분석

5) www.globalwindow.org '13.10.25

<2014년 부분별 창업 관련 지원제도>

부분	세부 분야	개수
아이디어 창출 (13)	-	13
구체화/기술개발 (56)	아이디어 디자인 지원	5
	기술기획	7
	기술개발	35
	개발장비 제공	3
	선도벤처/전문가 연계	6
기술평가/권리화 (38)	동향분석/시장정보제공	5
	기술가치평가 지원	8
	지적재산권 확보 및 활용	25
자금 (31)	창업자금	14
	시제품 생산 자금	5
	시설/운영자금	8
	경영 안정화 자금	1
	수출 자금	1
	조세 지원	2
교육 (26)	창업 인력 교육	12
	기술인력 교육	4
	지식재산 인력 교육	8
	해외 인력 교육 지원	0
	인력 수급 안정 지원	2
인프라 (19)	공간(창업보육센터) 지원	5
	정보시스템 지원	6
	기업 인증 지원	8
경영/마케팅 (35)	마케팅/기술 홍보	10
	세무/법률 지원	8
	사업화 컨설팅	5
	판로 확보 지원	12
총 지원정보 개수		218개

자료 : www.creativekorea.or.kr을 참조하여 분석

3. 대학의 학생 창업 지원현황

□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2년 424개 대학 중 175개 대학에서 학생 창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액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

○ 2012년 총 229억원이 대학생 창업에 지원되었으며, 이중 정부지원금이 193억원에 달해 84%를 차지

○ 창업관련 학과 개설(숙대, 동국대 등), '글로벌기업가센터' 건립(한양대), 창업활동에 학점 부여(경일대 등), 창업특기생 선발(연세대, 건국대, 숙대 등) 등 일부 대학의 경우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 한국과학기술원은 총 8억 8380만원(교비 2억 9천만원, 정부지원금 5억 9380만원)을 학생 창업지원금으로 사용하여 지원금 1위 대학으로 분석됨

- 연세대(4억 7,238만원), 동서대(3억 2,290만원), 안동대(3억 1,002만원), 강원대(2억 9,417만원) 등 38개교는 정부지원금만으로 학생 창업지원

- 조선대(8,663만원), 광주과학기술원(5,499만원), 대구한의대(2,252만원), 울산과학기술대(1,717만원), 대경대(1,518만원) 등 10개교는 교비로만 창업학생을 지원

○ 계명대는 학생창업지원을 위해 전담인력(교원 6명+직원 14명)을 가장 많이 두고 있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20,496㎡의 창업전용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

- 이에 반해, 175개 대학 중 33개 대학은 창업전용공간을, 26개 대학은 창업 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어, 이들 대학 내 창업가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2012년 주요 대학 창업 지원현황>

학교명	지원액(천원)		창업전담인력		전용공간
	교비	정부지원	교원수	직원수	(㎡)
한국과학기술원	290,000	593,800	0	11	283
전주대학교*	276,994	202,700	4	9	384
인덕대학교*	200,885	198,000	1	6	523
전북대학교	170,923	436,165	3	9	765
한양대학교	158,669	504,662	2	4	223
원광대학교	145,884	6,000	1	2	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35,903	552,909	4	9	406
경남정보대학교	134,184	72,649	1	2	822
인천대학교*	101,419	460,024	4	9	106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00,140	153,738	1	3	156
경일대학교*	96,111	191,714	2	3	846
숙명여자대학교	90,000	296,522	3	4	430
조선대학교*	86,630	0	2	4	626
영남이공대학교*	70,660	223,336	2	7	91
공주대학교	70,000	188,332	2	7	703
건양대학교	67,000	795,341	2	5	806
경북대학교	65,591	549,118	1	11	888
호서대학교*	60,739	288,610	5	3	604
경성대학교	60,609	4,100	1	2	83
용인송담대학교	56,125	62,000	0	3	175
광주과학기술원	54,985	0	0	2	20,49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1,188	186,550	3	10	1,546
한국교통대학교	48,118	275,568	2	7	1,788
단국대학교(천안)	44,328	191,273	11	6	880
순천향대학교	41,927	509,384	3	4	1,254
서일대학교	41,878	0	0	0	0
연세대학교(원주)	38,000	554,186	2	8	287
대구대학교	38,000	410,667	5	6	860
영남대학교	33,628	210,603	3	4	418
서울여자대학교	27,040	92,088	0	2	396
목포대학교*	26,704	299,521	1	9	2,078
대구한의대학교	22,523	0	1	1	238
중앙대학교	21,978	240,200	1	5	432
건국대학교	20,000	89,310	1	4	79
신라대학교	20,000	62,000	0	0	10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7,174	0	0	1	62
대경대학교	15,179	0	1	1	680
전남대학교	15,000	816,948	1	7	422
계명대학교*	4,500	279,599	6	14	2,084
연세대학교*	0	472,376	1	6	359
동서대학교	0	322,898	5	6	2,169
안동대학교	0	310,020	1	6	179
강원대학교*	0	294,170	0	10	427
동국대학교*	0	228,807	3	9	494
충북대학교*	0	215,747	5	14	1,579
한남대학교*	0	152,000	4	8	0
제주대학교*	0	98,455	8	8	527
동아대학교*	0	48,300	1	7	2,826

주 1) *창업선도대학 18개 지정대학
자료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Ⅲ. 대학생 창업 애로사항

1. 제도 활용

□ 기관별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획일적 지원내용 등 수요자인 창업가에게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

○ (다수다종의 복잡한 제도) 관련제도가 218개에 달하는데다 제도별로 신청 시기, 서류 및 절차가 상이해, 창업초기기업이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음

* 창업관련지원사업(개): 중소기업청(76), 특허청(65), 미래창조과학부(24), 산업통상자원부(22), 중소기업진흥공단(14), 농촌진흥청(6), 기술보증기금(5), 교육부(2), 기타(4)

[사례 1] "지원 서류 준비 및 정산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사업아이템 개발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지원 제도에 신청하지 않을 생각임."

[사례 2] "학교 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음. 검색을 해보니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던데 나한테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기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 (전문 심사위원 부족) 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중 시장성 평가나 사업성 평가가 가능한 전문가가 소수에 불가하고, 심지어 창업 경험이 없는 위원들도 있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사례 3] "사업자체의 성장 가능성이나 예비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 심사과정에서 창업 경험이 없는 교수님이나 IT 관련 전문가들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창업아이템은 애초부터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유사한 아이템들이 다수 선정되다 보니 시장 과열경쟁을 초래하기도 함"

[사례 4]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지지 못하는 것 같음.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정부 사업에 지원했었는데, 첫해는 탈락하고 이듬해는 선정됨. 심사위원 질의 응답과정에서 우리 아이템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선정된 것 같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 (복잡한 정산) 자금지원은 대부분 사전승인요청을 거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매달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학력중심의 획일적인 인건비 산정 기준 등 현실과 괴리된 절차 규정이 산재

[사례 5]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매달 영수증을 구비한 서류다발을 제출해야 했음. 인건비 정산을 위해 근로계약서, 졸업증명서 등을 매달 제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월 인건비 산정지침이 고졸 100만원, 대졸 150만원, 석사 20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 학력중심으로 책정되어 있음. 함께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직원이 주요한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데도 인건비 기준에 따라 100만원 밖에 지급되지 못했음. 담당 업무를 근거로 한 능력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사례 6] “사후정산은 정말 번거로운 작업임. 정부 사업별 정산 방법이 달라 증빙서류 준비를 위해 직원 한명이 전담해야 될 정도였음.”

[사례 7] “정산과정에 있어서 센터가 ‘갑’, 창업 기업이 ‘을’ 대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함. 서류처리절차가 복잡해서 FAX가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함.”

[사례 8] “서비스업은 인건비 사용이 대부분인데 학력별, 전공별로 인건비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자금사용이 어려움. 실제 기획 및 창업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IT 관련 전공이 아닌 타전공자라는 사유로 인건비 책정이 불가했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 (획일적인 지원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는 정해진 시간만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학내 사무공간에 입주해야 하는 등 업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시행으로 낭비 초래

[사례 9]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조적 역량 인재양성 사업을 받았는데, 두 제도 모두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음. 처음 받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었으나, 회계, 법률 등 동일한 내용을 사업 수혜시마다 받는 것은 시간 낭비인데도 의무 사항이라 자리를 지켜야 했음.”

[사례 10] “창업한 뒤에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았는데, 이미 외부에 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교 내에 제공되는 사무공간을 일정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고 했음. 사무공간 제공기간이 서비스업의 경우 최대 8개월이라 주소 이전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존 외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음. 두 개의 사무실을 오가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공간활용을 원하는 다른 창업가들이 많은 상황에서 낭비라는 생각이 듦.”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 (서비스 업종의 차별) 웹서비스, 앱개발 등 서비스업 관련 창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원제도의 관행이 그대로 존속

* 창업선도대학의 지원내용
  - 제　　조 분야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과제당 최대 3.5천만원, 8개월 이내

[사례 11] “사업비 정산시 R&D 항목의 경우 석사졸업자와 별도의 연구실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등 제조업 중심인 것 같음. IT업종의 R&D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실이 반영이 되지 않음. 달리 책정되어야 한다고 봄”

[사례 12] “앱개발의 경우 인건비가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함. 그런데 현재 자금 지원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은 50% 정도에 불가하고 나머지 시설, 장비 등 물품을 구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요 없고 관련도 없으나 증빙이 용이한 물품을 사서 다시 되팔아 인건비로 충당한 적도 있음”

[사례 13] “게임회사라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구입이 필요한데 소모품이 아니라서 물품구입비로 구입할 수 없다고 했음. 게임회사에서 필요한 항목과 지원 자금 정산 항목간 괴리가 커서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2. 경영관리

☐ 대학생 창업은 학내 창업의 한계로 인력채용과 자금조달에 특히 애로를 호소

○ (인력부족) 창업 후 동아리, 선후배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이 교내 창업의 장점이면서도, 학교 내 위치하다보니 외부 전문가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애로 발생

–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두기 어려워,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인턴 채용시 최대 6개월까지 월 80만원씩 지원

[사례 14] "인력채용이 힘든 초기 창업기업에게 인턴 활용은 큰 도움이 되므로 창업기업의 인턴활용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함. 지원업무가 대부분인 대기업 인턴생활보다는 창업기업에서 주체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인턴에 참여한 학생에게도 좋은 일이 되며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임"

[사례 15] "인턴지원제도가 있어서 방학기간동안 학생을 인턴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학내 창업의 장점임. 다만 창업기업 특성상 낮은 인지도와 학교 내 기업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지원하는 인력이 거의 없어 직원 채용이 어려움"

[사례 16] "청년인턴제를 신청하려 했는데 현재 3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 자격 요건 미달로 신청할 수 없었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 (자금부족) 창업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 투자처를 찾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다반사

– 정부 지원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후 자금조달에 애로 발생

* 정부 자금지원 사업(31개): 창업(14), 시제품생산(5), 시설/운영(8), 경영안정화(1), 수출(1), 조세(2)

<2014년 대학내 창업인프라 조성 및 자금지원 주요 예산>

(단위 : 억원)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증감액 (%)	비고
합계	1100.5	1625	569.5 (51.7)	
창업아카데미	69.5	45	30.5 (43.9)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창업선도대학	402	508	106 (26.4)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스마트창작터	75	112	27 (36.0)	모바일 앱,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청년창업 사관학교	254	260	6 (2.4)	만 39세 미만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청년창업 펀드출자*	300	700	400 (133.3)	민·관 공동조성: 700억원(정부 출자) + 300억원(민간 매칭)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11.21.), 2014년 창업지원사업 안내(중기청, '14)

[사례 17] "정부의 최대 지원자금은 5천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여러 업체들에게 나누어주다 보니 한 업체당 3천만원 수준에 그침. 초기자본금으로 성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2차, 3차 추가 지원을 받기 불가능한 구조라 같은 회사지만 법인을 새로 만들어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3. 창업자간 네트워크 활용

☐ 동종업계 창업 선배나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창업 후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멘토가 부족

○ (전문 멘토 부족) 사업 경험이 없는 대학생 창업가가 창업 전후 겪게 되는 수많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종업계나 관련분야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비

– 창업이 활발한 밥손대학(미국), 아헨공대(독일) 등은 상시적인 멘토가 가능하도록 산업현장 경험을 교수의 필수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기업인 교수비율이 100%에 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사례 18] “원가책정, 마케팅 경로, 물류비 분담 등 동종업계 창업 CEO나 관련 전문가에게 경영상 필요한 업무 지식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제공되는 멘토서비스의 멘토단이 모두 교수님들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음. 관련업계 경험자를 연결시켜 주는 멘토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음.”

[사례 19] “해외 시장진출 관련 자문을 얻고자 멘토 교수님을 찾아갔으나, 자리에 잘 계시지 않아서 만나기가 어려웠음. 몇 번의 노력 끝에 만났는데 정작 잘 모르는 분야라며 무역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음.”

자료 : 청년창업가 자체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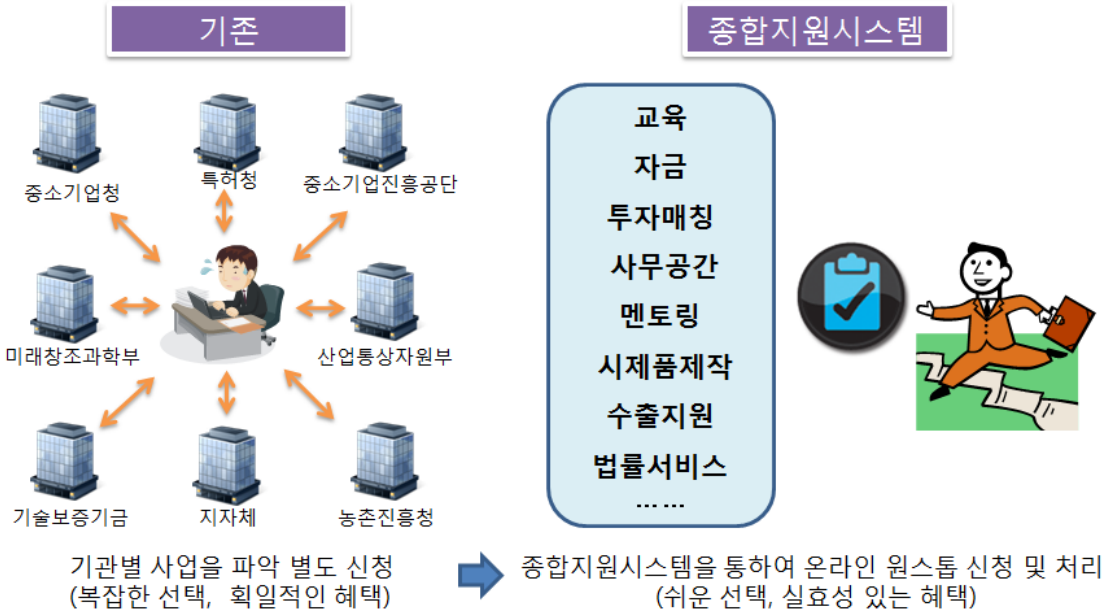
Ⅳ. 결론 및 시사점

□ (제도측면) 수요자인 창업자가 한곳에서 지원제도를 파악·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

○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이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 창업자 지원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을 알려주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 구축

– 현재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서 여러 사업들을 집대성 해 놓긴 했으나, 단순 분류만 된 형태로, 결국 각 사업별 시행시기, 지원내용, 지원대상, 준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시행기관을 찾아서 별도 문의해야함

<창업지원시스템 개선방안>



○ 창업자가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식 지원제도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없애고 많은 창업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

– 교육의 경우, 교육 과정을 사전에 공개하여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자금지원, 투자매칭, 융자, 사무공간, 멘토링, 시제품제작, 수출지원, 계

약 등 법률서비스지원, M&A 기업진단 등 모든 관련 지원사업들 가운데 창업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 모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 사업 정리 등 창업지원사업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며, 창업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지원받게 되므로, 기존 기간별/업종별 차별 지원의 문제점도 개선 가능

□ 구비서류의 간소화, 부처간 서류양식의 통일, 정산과정을 단순화하는 등 세부 지원방침 개선을 통한 행정편의성 증대

○ 창업 자금 지원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시행기관별/사업별 요구되는 각기 다른 서류양식은 하나로 통일,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 관련분야 CEO나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참가시키는 등 사업의 시장성과 창업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

- 수요자인 창업자의 행정편의를 위해 부처간 서류양식을 단일화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 사업비 사전승인요청 절차를 없애고, 지원금 총액을 카드로 일시 선지급하는 방식을 확대하여 정산의 편의성 증대

-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K-스타트업 사업처럼 카드발급을 통해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카드영수증으로 정산과정을 대체하여 행정절차 단순화

○ 지원기관의 연간 성과평가 일정에 맞춘 듯, 대부분의 창업 지원제도의 신청기간이 1/4분기에 실시되어 그해 4/4분기 전에 마무리 되는 구조이다 보니, 업체의 특성상 자금이 필요할 시기에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사업 시행시기를 분산시켜 연중 상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창업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대학창업의 대다수인 콘텐츠, IT 등 서비스업 창업기업의 제도 활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지원 개선

○ 서비스업 내에서도 게임, 디자인, 컨설팅 등 업종별 특성이 상이한 바, 이를 반영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물품구입비 등의 업체별 맞춤형 사용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운영측면) 창업기업의 인턴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창업 후 4~5년까지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

○ 대학생 창업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더라도 청년인턴제 활용이 가능토록 대상 기업 요건 완화

– 인력채용이 힘든 초기 창업기업에게 인턴 활용은 큰 도움이 됨

– 현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대상기업 요건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창업기업의 경우, 3인 이상으로 완화

○ 창업초보자인 학생 창업가는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며 창업성공의 과실을 시장에서 확정하는 시기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창업 이후 성장단계에서의 사후관리 및 지원인프라 구축이 필요

– 창업 지원 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넓혀서 장기적 지원을 제공

– 최근 정부도 일부 지원제도에 대해 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창업 3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6]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 개선함(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관계부처 공동, 2014.3.19.)

6)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하는 제도

□ (네트워크 측면) 상시적인 전문 멘토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자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 도모

○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시 현장 경험 중심의 전문 멘토링이 가능하면서 창업가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

–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학 교수 채용과정에서 창업경험이나 기업 운영 및 산업체 근무 경력을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내에서 상시적인 멘토가 가능하도록 지원

○ 창업자간 온오프라인 소통채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공 및 실패경험 공유를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자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를 통한 애로 극복 및 신사업 창출에 도움이 됨

* Angel.co에서는 미국 내 많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엔젤 투자자 간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투자 현황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음

[참고문헌]

麥可思, '2012~2013年 中國大學生就業報告', 20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꿈과 끼가 있는 청년창업에 재정투자 대폭 확대', 2013.11.21.
중소기업청, '2014년 창업지원사업 안내', 2014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창업선도대학, 원스톱(One-stop) 창업지원 본격 시작!', 2013.3.22.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 정부, 「벤처 ·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발표', 2014.3.19
교육부 외,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 2013.9
창업진흥원, '대학창업교육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업동아리와 집합적 창조성', 2013
매일경제, '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투자 '활짝'', 2014.3.6.

www.creativekorea.or.kr
www.academyinfo.go.kr
www.globalwindow.org
http://kess.kedi.re.kr/index
http://www.entrepreneur.com/topcolleges/undergrad/0.html

청년 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Trade Focus Vol.13 No.16

발행인| 한덕수
편집인| 오상봉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4년 4월 1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